고병원성 AI 맞춤방역 성과 눈에띄네

전남도, 선제적 차단방역 활동
발생 48%·살처분 92% 줄어
방역비 521억원서 116억원으로

전남도가 지난 겨울 어려운 방역환경에서도 선제적인 맞춤 차단방역 활동을 펼친 결과 전년에 비해 발생이 줄어 살처분도 함께 감소했고 방역비용도 절감해 주목을 받고 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영농활동이 끝나기 한 달 전인 9월부터 철새 유입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살처분 범위를 3km에서 500m로 축소하고, 위험지역 위주로 농장통제초소를 운영해 기존 204개소에서 50개소로 대폭 줄였다. 이런 가운데 발생 건수는 전년(21건)보다 48%(11건) 낮췄고, 살처분은 전년(381만 마리)보다 92%(32만 마리) 감소했다.

이에 따른 방역 비용 역시 전년(521억원)보다 78%(116억원)를 절감했다. 구체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245억원에서 36억원으로, 살처분 처리비용은 1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용은 163억원에서 64억원으로 각각 줄었다.

이같은 성과는 가금농장 방역 시설 선제적 보강(75억원), 농장주 방역 의식 향상 교육, 철새도래지에서 농장 주변으로 소독 방법 조정 등 전남도와 생산자단체, 계열사의 협력체제가 작동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발생농장 과학적 분석에 따른 맞춤 차단방역도 한몫했다.

전남도는 올 겨울을 대비해 축사 소독시설과 보온시설을 추가 보강하고, 발생농장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미흡 사항을 위주로 현장교육을 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야외 환경 등에 남아있는 바이러스 등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추가 발생 위험성이 있다"며 "가금농장은 경각심을 잃지 말고 기본 방역수칙을 생활화하고, 올 겨울을 대비해 농장 방역 시설을 재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에서 '주의'로 하향했다. 2021~2022년 겨울철 전국 7개 시·도에서 46건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 전남에선 6개 시·군에서 11건이 확인됐다. 올 들어서는 전국에서 27건이 발생한 반면 전남은 2건에 불과하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립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팔 걷었다

농기원과 인력 양성 등 업무협약

전남도립대가 전남농업기술원과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농업농촌 6차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과 인력 양성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6차 융복합산업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공동 개발 운영 ▲2급 치유농업사 인력 양성 및 운영을 위한 협조 체계 유지 ▲전남 커피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상호협력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업무협력 등이다.

도립대 관계자는 "대학의 우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인재를 적극 육성해 지역사회에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형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무안서 시작

전남도 13개 센터 순회 간담회

전남도가 무안, 광양 등 13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순회하며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소개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이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전남형 최중증장애인 맞춤형일자리 사업을 시작한 무안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5일 첫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

간담회 참석자들은 "중증장애인은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됐다"며 "이 사업이 중증장애인도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7명은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 문화예술 활동,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 등 3가지 주요 직무에서 주 15시간, 월 79시간을 근무하고 급여는 월 72만3640원(시급 9160원)을 수령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관광신산업 창업 뒷받침 멘토단 모집

20일까지 접수…30명 선정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관광 신산업 분야 예비 창업자의 안정적 창업을 밀착 지원할 관광 전문 멘토단을 모집한다. 멘토단은 '관광신산업 창업 지원사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영지원, 판로개척, 콘텐츠 제작 및 기획, 홍보마케팅, ICT벤처, 로컬관광, 6개 분야에서 멘토링을 수행한다.

모집 기한은 오는 20일이다. 자격 여부, 경력사항 등을 검토해 분야별 전문가인 멘토단 30명을 선발한다.

멘토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전남의 매력적 관광자원을 분석해 창업자에게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할 실무형 관광 전문가를 우대해 선정할 방침이다.

경영지도사, 변호사, 변리사 등 자격을 보유하거나 크라우드 펀딩, 스마트 관광 등 분야에서 최근 5년간 컨설턴트 활동을 해온 전문가 중 관광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광 창업 멘토링 및 컨설팅 등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멘토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jeonnam.go.kr)의 공고문과 전남관광재단 누리집(ijnto.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멘토단을 통해 창업자의 창업 과정 전반에 대한 연계, 밀착 지원으로 뿌리가 튼튼한 로컬관광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라며 "관광신산업 분야에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역량 있는 사람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또 참신한 관광 분야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를 모집 오는 22일까지 전남관광재단을 통해 모집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탄소중립 실천

도민 환경교육 72개 과정 운영

전남도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실천할 에너지절약, 자원순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 도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을 확대한다. 전남도는 올해 자원순환 및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 방법 등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확대, 72개 과정을 꾸려 28만 명 수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학교는 기존 과정과 연계해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가상 교육 등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포함했다.

환경교육 참여를 바라는 도민과 기관·단체는 전남자연환경연수원 등 전남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기관·단체 누리집에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인재개발원 도민 참여 교육 신청 접수

드론 체험 등 4개 과정

전남도인재개발원이 공무원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개발원을 만들고,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학습과 체험, 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2022년 도민 참여 교육'을 본격 운영한다.

교육은 ▲도민 드론 체험 ▲도민과 함께 하는 숲속의 힐링 ▲전남의 블루자원 ▲국고보조금 실무, 4개 과정이다. 과정별 각 3기로 구성해 기수당 30명씩 총 360명을 11월까지 교육한다.

도민 드론 체험 과정은 항공 촬영, 지적 측량, 농약 살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는 드론의 사용 방법을 직접 배우고 체험할 수 있다. 5·9·10월 중 운영한다.

도민과 함께하는 숲속의 힐링 과정은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7·9·11월 진행한다.

전남의 블루자원 과정은 전남도의 핵심 정책인 '블루 이코노미'의 6개 테마별 현장 체험을 위주로 5·6·9월 진행한다. 국고보조금 시스템 교육 과정은 국고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도입한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법을 알려준다.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4·7·10월 교육한다.

도민 참여도를 높이고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위해 국고보조금 실무 교육을 제외한 3개 과정은 동부·서부·광주권으로 나눠 직접 찾아가는 교육을 한다.

교육비는 전 과정 모두 무료로, 전남에 주소를 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 인재육성 장학금 29일까지 신청

사회적 배려계층 등 3개 분야 542명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전남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발굴하고 소외계층의 도움닫기를 위해 '2022년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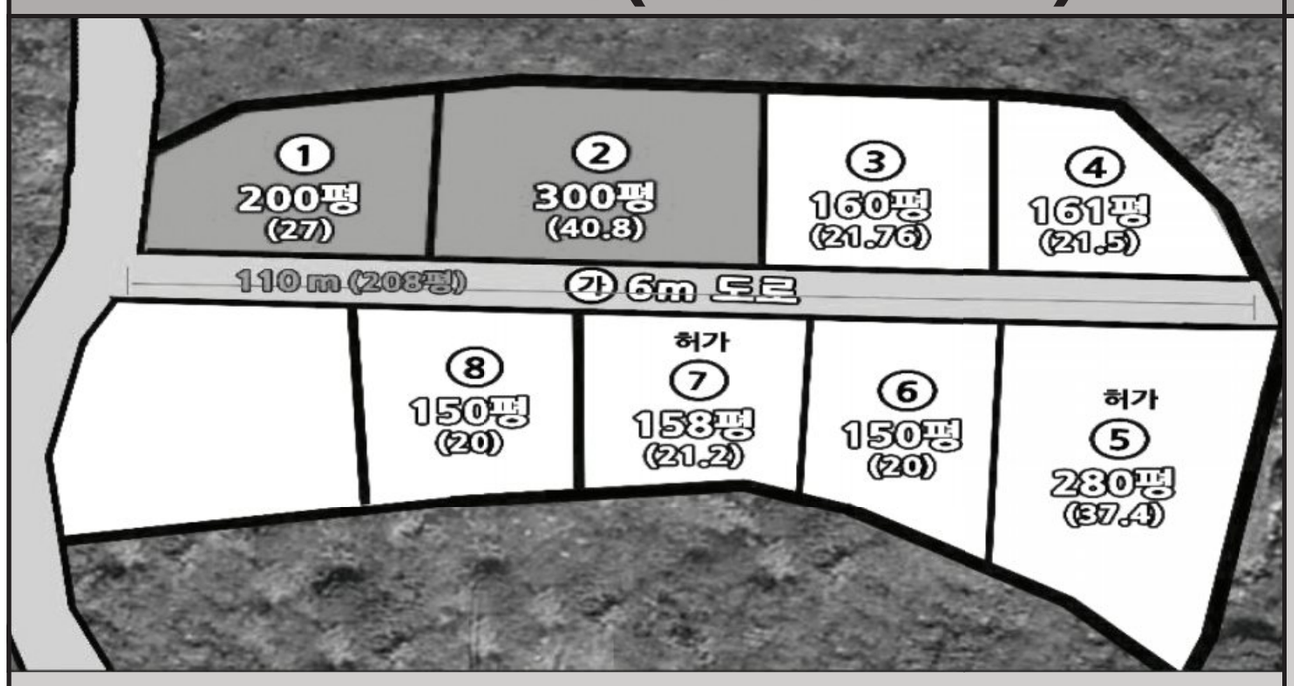
선발 인원은 3개 분야 12종 542명이다. 성적 우수, 지역 봉사, 출향 향우 자녀 대상 아름드리 장학생 176명, 사회적 배려계층, 만학도, 학교밖청소년 대상 희망나래 장학생 176명, 지역 및 수혜자 특별지정 장학생 190명을 선발해 총 6억62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학생 본인이나 보호자가 1년 이상 전남에 주소를 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다. 전남사랑 도민증이 있는 향우의 대학생 자녀도 지원할 수 있다. 올해는 고교 졸업 후 전남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특성화·마이스터고, 일반계 직업계열 3학년 대상 지역 정착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공헌 장학생의 봉사활동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오는 29일까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에 온라인 접수하거나, 주소지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21년에는 기업·유관기관 및 정기후원자의 꾸준한 후원으로 청소년 1117명을 대상으로 9억2000만원을 지급해 지역 청소년의 꿈사다리 역할에 기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6억
(보 3천, 월 350만, 융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흥,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광주	북구 신안동(다세대빌라)▶감정가 3억9천 -> 1억7천 (3/23)
	광산구 소촌동(농지)▶ 감정가 4억4천 -> 2억5천 (4/14)
	광산구 덕림동(임야)▶ 감정가 21억 -> 15억 (4/15)
	서구 화정동(주택)▶ 감정가 2억5천 -> 1억4천 (4/15)
	동구 지산동(임야)▶감정가 19억 -> 13억 (4/22)
	광산구 하남동(주택)▶감정가 7억8천 -> 5억5천 (4/22)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감정가 95억 -> 42억 (4/26)
전남	화순군 도곡면(임야)▶ 감정가 7천 -> 7천(3/31)
	담양군 창평면(주택)▶ 감정가 2억5천 -> 2억5천 (4/6)
	나주시 빛가람동(주차장)▶ 감정가 17억 -> 12억 (4/11)
	보성군 벌교읍(근린시설)▶ 감정가 130억 -> 38억 (4/11)
시외	경기도 수원시(근린주택)▶감정가 15억 -> 7억4천 (3/31)
	경북 경주시(다가구원룸)▶감정가 15억 -> 5억4천(4/5)

010-6670-9800